

아이티의 어린이  
지진 일년 후  
: 기로에 서있는 아이티



## 아이티: 과거를 뛰어넘기 위한 의지

어떤 종류의 재난이든 아동은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강도 7.0 규모의 지진은 수많은 건물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했으며 23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아이티 인구의 46퍼센트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sup>1</sup> 이는 아이티 지진 구호활동에 있어 세이브더칠드런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거의 일 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이티의 아동들은 여전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 발생하여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를 비롯한 다른 여러 지역을 침수시킨 허리케인 토마스나, 10월 말부터 시작되어 아이티 내 열 군데의 모든 행정구역으로 빠르게 확산된 콜레라의 위협이 그것입니다. 계속되는 재난과 파괴로 휘청거리는 국가는 아동이 살기에는 매우 위험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아동이 난민캠프에서, 또 많은 아동이 슬럼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은 착취와 학대의 위협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91년 동안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978년부터 보건 및 교육사업으로 아이티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 전 세계 후원자들의 지지덕분에 세이브더칠드런은 87만 9,000명 이상의 지진 생존자들에게 식량, 피난처,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많은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마이애미 항공편과 도미니카 공화국 트럭을 이용해 구호품을 전달하였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50개의 '아동친화공간'을 설립하였으며 아동에게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의 아동과 그 가족들이 생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 정부 및 여러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티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해복구작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티가 아동에게 충분한 보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미래를 아이티 스스로 만들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의 가정과 여러 기관들이 그들의 아동에게 '아동다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아이티의 쇄신은 아이티 정부, 원조국,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비정부기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티 국민들의 여러 해에 걸친 투자와 지원,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sup>1</sup> 출처: UNICEF, 2010, "Children of Haiti: Milestones and looking forward at six months." [http://www.unicef.org/infobycountry/files/UNICEF\\_Haiti\\_-\\_Six\\_Months\\_Report\\_Final.pdf](http://www.unicef.org/infobycountry/files/UNICEF_Haiti_-_Six_Months_Report_Final.pdf)

## 2010년 1월 12 이전의 아이티

지진발생 이전의 아이티는 통치, 보건, 영양 그리고 공공 교육시스템의 부재 등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티는 지진발생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이며 아이티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1달러 이하, 78퍼센트가 하루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도의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동 역시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전체 취학연령 아동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만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영·유아와 산모의 사망률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아동의 가정 내 노역 관행은 22만 5,000명의 아동들을 일터로 내몰았고<sup>2</sup> 아동과 청소년을 방치, 성적 학대,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위협하였습니다.

## 2010년 1월 12일 이후의 아이티

2010년 1월 12일은 아이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지진의 여파는 지진 발생 이전부터 가난했던 아이티 국민들과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에 즉각적이고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1,000만 명의 아이티 국민 중 약 300만 명이 이번 비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은 아이티의 수도와 주변 도시들을 초토화시켜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또, 40만 이상의 가구(약 200만 명)가 이번 참사로 집을 잃었습니다. 그 중 약 160만 명의 주민들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스스로 정착촌을 조성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국민의 15퍼센트 이상이 불안정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진 이후의 아이티는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 백 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이번 참사 이후, 아이티는 새로운 단계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칠드런에게 있어 이번 지진은 막대한 피해규모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부적 장애요소들 때문에 역사상 가장 어려운 구호활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붕괴는 구호활동의 진행을 더욱 더디게 하였으며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이면서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던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재산 피해도 막대하였습니다. 게다가 재건작업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sup>2</sup> 출처: UNICEF, "Children of Haiti."



지진이 포르토프랭스를 강타한 지 3일 만에 집이 무너진 돌무더기 안에서 한 여자아기가 구출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의료진은 아기가 탈수증상을 보일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진단했다. 위니(Winnie)의 부모는 불행히도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사망하였고 삼촌이 세이브더칠드런으로 위니를 데리러 왔다. 8개월이 지난 후 위니의 삼촌은 위니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니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도 조금 할 줄 알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도 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큰소리가 나면 도망가려고 해요.”

이러한 당면과제들과 토지소유권, 불평등, 자금부족 문제를 비롯한 혼란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는 스스로를 구제할 여력이 없는 아이티의 국민들과 아동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 중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토록 복구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지만, 우리 모두가 전지구적 공동체로서 하루아침에 비극을 맞이한 이웃을 최우선적으로 돕는다면 이러한 난제들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티 정부의 주도하에,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현지 또는 국제비정부기구들, 원조국 정부들,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UN)을 포함한 다자간 국제기구들은 아이티의 강력한 국가기구와 사회 공동체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이티 사업장 총괄책임자인 게리셰이(Gary Shaye)는 아이티 복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혹은 철인 3종 경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티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안정한 주거환경과 실업,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난민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지진 발생 이전에는 어려웠던,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보건 시설에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던 임산부들과 모유수유 중인 여성들은 이제 의사와 간호사, 산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난생 처음 향상된 보건서비스의 혜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정부와 국민들의 협조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보건, 영양, 교육, 위생 분야의 향상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캠프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발생한 허리케인 토마스와 콜레라의 창궐로 인한 피해 대응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긴급구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아이티 국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무너진 집과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복구작업을 아이티 전역에 걸친 캠페인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몇 가정은 생계수단을 되찾아 자녀의 미래를 위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티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움직임은 지속적인 지원과 원조국들의 투자 없이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좀더 장기적인 세이브더칠드런의 목표는 아이티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지진 발생 후 일년을 맞았지만 아이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들은 여전히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의 행복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장기적으로 아이티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제사회가 아이티의 아동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후원자님에 대한 감사인사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의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긴급구호활동 및 재건 노력에 힘을 보태어주신 전세계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용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이티 내의 현장 직원에서부터 세계 각 회원국의 모든 직원들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 국민을 돕고자 하는 여러분의 지지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이 서반구에서 가장 광범위한 구호활동을 오늘날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의사인 하리(Hary)는 응급치료, 가족계획, 예방접종 및 검진을 포함한 보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16만 5,000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23만 명의 여성과 아동에게 영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리와 같은 의료직원들 덕분이었다. 거의 7년 동안 의사로 일 해온 그는 아이티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아이티의 가정들을 방문하였고 구호활동을 위해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저는 여기에서 주민들과 함께 있어야 해요. 저는 절망에 빠진 이곳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래의 표는 아이티에서의 구호활동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이 조성한 기금의 총 액수와 아동을 위한 중점 사업분야에 지금까지 사용된 기금을 나타냅니다.



## 되돌아보기: 세이브더칠드런의 분야별 성과

### 보건 및 영양

#### 보건치료서비스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유아 및 산모사망률을 보이는 국가이며 지진 발생이전부터 국민의 보건·영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보건인프라는 그마저도 지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수 천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부상을 입은 채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보건분야의 엄청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지 및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가장 큰 지진피해지역에 80개의 보건소와 영양지원시설을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0년 12월까지 약 16만5천 여명의 아동과 성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3만 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에게 영양 서비스를 공급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면 그 어느 곳이라도 의료팀을 파견하여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도시와 외곽지역, 난민캠프와 지역사회에 이동진료소를 통한 즉각적인 보건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아이티 보건부와 다른 보건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보건인력을 훈련시키고 의료장비와 의료물품을 공급하며 주요 의약품의 공급망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티의 보건인프라 재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역, 파상풍, 소아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는 예방접종프로그램은 지진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조카를 기르는 19살 소녀: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실시



마누시카(Manoushka)는 이제 막 청소년기를 벗어난 19살 소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3개월 된 조카 앙투안(Antoine)을 기르기로 한 것입니다.

“아기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마누시카는 말했습니다. “언니는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는데 뭔가 잘못 되어 아이를 낳자마자 죽었어요.” 아이티의 산모사망률은 출산 10만 건 당 630명의 산모가 사망하여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마누시카는 앙투안을 자크멜에 있는 핀치나트(Pinchinat) 캠프의 세이브더칠드런 진료소로 데려왔습니다. 당시 앙투안은 며칠 동안 설사를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진료소에 있는 셰리샤 클레몽(Chericia Clermont)은 마누시카에게 양육에 관련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오면 많은 도움을 받아요.” 마누시카는 말합니다.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되었어요. 앙투안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선생님께서 여기 물은 제대로 정수가 되지 않아 앙투안이 마시면 아플 수 있으니 항상 물을 끓여 마셔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앙투안이 설사증세를 보이면 구강 투여 수분보충염을 먹여 탈수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조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데 3시간이나 걸렸어요. 앙투안이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앙투안을 잘 키우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과 보건시설이 없는 시골지역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과 가임 여성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와 아동의 보건, 가족계획, 임산부 건강 및 산후조리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로 약 23만 여 명의 주민이 세이브더칠드런의 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3만 600여 명의 여성과 아동에게 급성영양실조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여

영양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또한 지역사회에 대대적인 모유수유 홍보와 산모들 상호간 상담활동, 그리고 모유수유를 받을 수 없는 영아를 위한 분유 제공 등을 통해 영·유아를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급성영양실조에 대한 치료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영양실조를 막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아동영양관리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 데잘린(Dessalines)의 ‘클레어외즈병원(Claire Heureuse Hospital)’



‘클레어외즈 병원’은 의사가 단 4명뿐인 작은 병원입니다. 유일한 한 대의 앰불런스는 현재 부서진 채 병원 앞마당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작은 병원은 수용환자가 꽉 찬 상태입니다. 복도와 접수처, 심지어 병원 앞마당까지 환자들로 가득 메워져 있고,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병원 침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동안 70여 명의 데잘린 주민들이 콜레라로 사망하였고 병원은 증가하는 환자 수를 감당하기 위해 수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5개의 침대만을 보유한 채 병원은 응급환자의 경우가 아니면 환자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65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콜레라 의심 사례로 이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중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2살 소녀 모리세트(Maurisette)는 그녀의 엄마 레메제(Remeze)가 딸의 설사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맥수액장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동안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모리세트는 아르티보닛(Artibonite)강 주변의 정화되지 않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은 식수, 목욕, 빨래, 음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메제는 그녀의 다른 두 아이에 대한 걱정도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진 발생 이후부터 위생증진과 보건지원사업에 관여해 오고 있으며, 콜레라 발생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34만 여명의 주민들이 콜레라의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깨끗한 물, 개선된 위생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클레어외즈 병원처럼 도움이 절실한 병원을 돕기 위하여 정맥수액장치나 정맥주사, 물을 정화시키기 위한 아쿠아탭, 플라스틱 양동이 등의 의료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티 보건부 및 지역당국과 협력하여 국민들의 보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이어 발생한 두 번째 재앙이 또다시 아이티를 휩쓸었습니다.

### 콜레라의 급격한 확산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거의 1년 동안 전염성 질병의 발생을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콜레라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전세계로부터 받은



지원덕분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수 십 년간 아이티에서 발생한 적 없었던 이 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보고서가 나온 지금 이 시점까지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콜레라가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세이브더칠드런 보건위생팀은 이미 파견된 지역과 협력관계에 있는 지역들에 콜레라의 확산을 막고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이러한 협력관계 덕분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몇몇 지역에 콜레라 치료센터를 설치하면서 콜레라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보건담당자들은 아이티 정부와 여러 국제기구들이 주도하는 집중교육캠페인을 재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티 주민들에게 비누로 손을 씻을 것과 물을 끓여 마실 것, 질병 초기 증상 발견 시 즉시 병원을 찾을 것 등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질병예방 및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 기반한 급성영양실조의 치료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 아동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에게 모유수유 방법과 영양실조 예방방법에 대해 교육함과 동시에 영양실조에 걸린 영·유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사회 보건소연합은 가정방문을 통해 영양지원이 필요한 영양실조 아동과 임산부, 모유수유 중인 여성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소들은 급성영양실조에 걸린 아동에게 영양보충식량 공급과 후속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들이 아동을 보건시설로 데리고 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서비스와 영양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은 아동과 여성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 국제원조기구들과 아이티 정부는 고아들과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어머니들에 대해 매우 염려하였습니다. 유엔의 영양담당부는 세이브더칠드런에게 6개월 미만의 고아나 모유수유를 받을 수 없는 영·유아에게 임시 영양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의료진은 점진적으로 분유의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유아 양육법에 대한 교육,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와 보호 및 지원을 지속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베이비 텐트'는 주로 난민캠프 내에 설치되어 자녀를 둔 어머니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훈련된 직원의 보조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 보건 및 영양 분야에 대한 2015까지의 계획

세이브더칠드런은 콜레라 치료시설, 수분보충염 등의 물자 공급, 지역사회 및 난민캠프 내에서의 전면적인 위생 증진 캠페인의 실시 등을 통해 콜레라의 발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아이티 내에 콜레라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활동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향상된 위생습관 및 지속가능한 위생관리체계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없다면 콜레라는 앞으로 수년간 아이티 국민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아이티의 높은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 정부, 현지 관련기관,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신생아, 아동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보건영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사업시설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할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영양실조 아동을 위해 보충식량의 공급과 같은 서비스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마을로 회귀함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대변하고 필수적인 보건 영양 지원 또한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일차 의료시설을 위한 자금의 확보, 의약품의 공급, 의료진 훈련 등을 통해 의료시설의 재건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사업 전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이티 주민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



교육은 아이티의 아동들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우선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0년 1월 12월 이전에는 취학연령 아동의 절반 이상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동의 경우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이 과정의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의 학교들이 최대한 신속히 재개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평상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텐트와 교육기자재, 학용품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2,3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진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사들은

막스(Max)는 아벨라학교(Abellard Institute) 6학년에 재학 중인 10살 소년이다. “이 학교에 있으면 우리는 비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비가 올 때도 우리는 수업을 할 수 있지요. 지금 저는 안전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비가 오거나 또다시 지진이 발생해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긍정적인 교실 운영방법과 지진 이후 심리적인 고통으로 아동이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이를 지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책가방, 공책, 연필 등의 학용품들을 포함한 스쿨키트가 38,500명 이상의 아동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 교육부 및 유니세프(UNICEF)와 함께 아이티 학교들의 재개와 고유기능의 지속을 돕기 위해 '유엔 합동 교육 클러스터(the UN Interagency Education Cluster)'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티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협력체들의 노력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45,000여 명의 아동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270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진발생 이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은 센트럴플라토(Central Plateau)와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인 '미래를 위한 읽기교육'(Lekti se Lavni: 렉티세라브니)'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의 읽고 쓰는 능력은 향상되었고 장래의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자재도 제공되었습니다.

아동은 미술에 잘 반응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 시에 더욱 그렇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미술치료 및 교육 (HEART: Healing and Education through Art)' 프로그램은 자크멜(Jacmel)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훈련된 예술가를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이용, 예술을 소개하고, 아동들이 아픈 경험을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표현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앙드리세(Andrise)의 이야기



앙드리세는 2010년 1월 유례없던 지진으로 집과 친척들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긴급구호팀이 그녀의 가족을 포함한 포르토프랭스 임시캠프장의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면서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은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이 제공되는 까르푸 페이(Carrefour Feuilles) 근처의 캠프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는 앙드리세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거의 일 년이 지난 후 세이브더칠드런은 앙드리세가 당면한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앙드리세와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텐트는 수백 개의 임시 주거지 텐트 중 하나이며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처럼 그들 역시 비로 인한 여러 위험요소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텐트 주변에는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들개들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앙드리세는 자신의 분홍색 교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10월 초 그녀는 지진 이후 처음으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앙드리세는 이제 막 5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가 정말로 기다렸던 일입니다. 앙드리세는 자신이 학급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되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시간을 좋아해요. 저는 의사가 하는 일이 좋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수학도 좋아해요.”

그러나 앙드리세와 가족은 캠프에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어떤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해요. 비가 오거나 천둥이 제 머리 바로 위에서 치면 정말 무서워요.” 앙드리세는 말합니다. “텐트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도둑이 많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두려워요. 텐트가 아닌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지진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말이에요.”

10월 29일에 앙드리세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생일날 빈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집입니다.

## 교육분야에 대한 2015까지의 계획

여전히 세이브더칠드런의 최우선 과제는 더 많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 지역사회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시킬 예정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또한 포르토프랭스, 레오간, 자크멜과 그 주변지역에 30개의 혁신적인 학교건물을 건축할 것입니다. 이 건물은

허리케인과 지진에 더욱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영유아발달(EC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며, 초등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를 높일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읽기교육(Lekti se Lavni)과 미술치료 및 교육(HEART) 프로그램은 더 많은 아동들의 참여를 위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아동보호

아이티에서는 지진 발생 이전부터 약 120만 명의 아동이 폭력,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약 22만 5,000명의 아동이 무급의 가사노동을 강요 받으며 ‘레스타베크(restavek)’<sup>3</sup>로 생활하였습니다.<sup>4</sup> 지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동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아동이 지진으로 가족이나 보호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난민캠프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는 치안이 보장되기 어려웠습니다.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친화공간(child-friendly space)’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훈련된 조력자가 관리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평상심을 되찾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습니다. 50개 이상의 아동친화공간은 아동에게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된 많은 아동들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족추적 및 재결합 프로그램’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족과 분리되었다고 등록된 4,630명의 아동 중 1,135명 이상의 아동이 세이브더칠드런이 주관하는 ‘가족추적네트워크(Family Tracing Network)’를 통해 그들의 직계 또는 방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숫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의 학교들이 점차 다시 문을 열고 아이티가 회복단계로 접어들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친화공간을 아동과 청소년들이 뛰어 놀며 또래집단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클럽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이러한 클럽들은 주요 활동을 지원할 또래조직 및 지역사회기관들과 연계될 것입니다.

### 아동보호 분야에 대한 2015까지의 계획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클럽과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단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장기적인 안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내 취약아동을 찾아내어 그들을 아동지원서비스와 연계시켜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아동보호 관련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또한 아동이 가족과

<sup>3</sup> 레스타베크(restavek): ‘함께’(avec) ‘머문다’(rester)라는 프랑스어의 합성어로, 한 가정 내에 기거하며 한 푼의 대가 없이 집안일을 도맡는 아동을 가리킴.

<sup>4</sup> 출처: UNICEF, “Children of Haiti.”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착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이티 정부의 아동보호 서비스에 협력할 것입니다.

## 주거, 안전한 시설 건축 및 재난위험경감



안전한 학교를 짓는 것은 아이티를 재건하기 위한 세이브더칠드런 계획의 중심에 있는 사업이다. 레오간에 있는 아벨라학교는 지진과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 학교의 교장인 아벨라(Abellard)씨는 말한다. “지진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 세대 이전에는 목조건물을 사용했는데 현재 아이티에서는 시멘트벽돌으로 학교를 짓죠. 그러나 지진으로 이러한 시멘트벽돌 건물들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한 시멘트벽돌 건물 때문에 아이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직원들은 구호물자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비 피해지역의 정비 및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건물잔해를 치우는 일이나 토지소유권을 정립하는 작업, 지진 이전에는 집을 임대하여 생활하였던 피난캠프의 수십만 주민들에게 주거를 보장해 주는 일 등 재건 작업에는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난민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티의 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신속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아이티의 아동들은 계속해서 고통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 국민들이 난민캠프에서 지내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그들이 하루 빨리 영구적인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주거, 안전한 시설 건축 및 재난위험경감 분야에 대한 2015년까지의 계획

구호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안전한 건축물을 짓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포트토프랭스, 레오간, 자크멜 지역에서 학교를 건설하는 일에 많은

주거문제는 아이티가 겪어 온 주요 문제이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긴급구호를 착수했을 당시부터 세이브더칠드런은 임시 피난도구를 공급하여 아이티 주민들이 스스로 임시 피난처를 짓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생필품 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초 허리케인 토마스가 아이티를 강타하였을 때 아이티 국민들은 다시 한번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현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신축되는 학교건물이 허리케인과 지진에 더욱 잘 견딜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설계 및 건축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앞으로 수개월 간 건설할 30개의 새로운 학교는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어질 것입니다.

## 식량안보와 생계지원

아이티는 70퍼센트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보이며 전체 국민의 약 75퍼센트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서반구의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발생한 지난 1월 지진은 많은 상점들과 상인들이 공급처를 잃게 만들었고 아이티의 취약한 경제는 완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정착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써, 약 30만 명의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진의 가장 큰 영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소득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정규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이티에서 생계를 잃는다는 것은, 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없으며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자녀를 학교로 되돌려 보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품삯지원사업(Cash-for-work), 현금지원, 재산회복보증사업은 지역사회로부터 지목된 가장 취약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가장 취약한' 가구에는 여성이 가장인 가구,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품삯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몇몇 사업들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재해의



레오간의 산 위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의 품삯지원사업(Cash-for-work)은 취약 가정의 삶을 바꾸고 있다. 베르토니 블랜차(Bertony Blanchard)라는 한 노동자는 그와 그의 가족이 이 사업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전한다. “저는 얼마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 딸을 학교에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위험까지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크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가에 제방을 쌓는 작업이나 레오간에서 수로를 청소함으로써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은 미래의 재난이 가져올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농업 및 어업 종사자, 소규모 상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포르토프랭스, 레오간, 자크멜 지역의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식량안보 및 생계지원 분야에 대한 2015년까지의 계획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의 가정이 소득을 창출하고 자산을 형성하여 자녀에게 교육, 보건 및 영양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가구 모두를 지원할 것입니다. 도시지역 특히, 포르토프랭스에서는 현금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계수단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여성시장상인, 중소기업인, 청년들을 위해 사업개발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 농가와의 협동으로 농업생산력과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1살 소녀 안젤린(Angeline)이 자크멜의 메이나드(Maynard)캠프에 있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손씻는 수도꼭지를 이용하고 있다. 안젤린은 학기가 시작되는 10월 이전,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친화공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건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과 위생시설에 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 물, 공중위생 및 위생시설

지진 발생 이후, 아이티 국민들 대부분은 깨끗한 식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진 발생 이전에도 아이티는 물과 위생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기 힘들었고 약 70퍼센트는 깨끗한 위생설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10년 10월 처음 발생한 콜레라가 지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위생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아이티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세이브더칠드런은 약 34만 8,0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과 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생활환경이 가장 열악한 난민캠프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화장실, 샤워시설 및 세면대를 짓고 있습니다. 깨끗한 위생환경은 질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캠프위원회와 직접 협력하여 위생증진 관련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난민캠프, 학교, 보건소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비누로 깨끗하게 손 씻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향상된 위생시설의 공급은 피난캠프의 주민들을 캠프장 밖으로 나오도록 독려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물, 공중위생 및 위생시설 분야에 대한 2015년까지의 계획**

세이브더칠드런은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티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물과 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 가정과 학교에서도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확보하여 질병예방에 중요한 위생습관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사회, 학교, 보건센터의 시설과 인프라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과 협력할 것이며, 아이티 정부 산하 '식수 및 상하수도건설 국가위원회(National Directorate of Potable Water and Sewage)'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조할 것입니다.

### **미래를 위한 다음 단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정부와 국제사회가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를 촉구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를 강타한 지진이 발생한 지 일 년이 된 이 시점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원조국 정부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1) 효과적인 원조 제공, 아이티 국민들에 대한 책임 보장, 아이티의 역량 강화**

원조국은 지원금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국제사회의 원조가 아이티의 재건과 개발을 관장하는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조국의 지원은 아이티가 자체적으로 할당한 예산을 보충해야 하며 아이티 정부의 '재건 및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for Recovery and Development)'이 정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강화를 돕습니다. 이를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 대학 및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아이티 정부와 원조국들의 지원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아이티가 장기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요구와 권리가 최우선시 되고, 지원자금에 관한 약속이 이행되며, 지원금이 투명하고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국제사회에 대한 노력 촉구

아이티의 새 정부와 유엔(UN), 원조국 정부는 2011년 초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을 소집하여 아이티 구호활동의 평가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추후단계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조국 상위 24개국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한 57억 5천만 달러(약 6조 5천억 원)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0년 11월까지, 2010년에 약속된 지원금은 단 42퍼센트만이 지급되었으며 추가적인 29퍼센트의 지원금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쓰여질 예정입니다.

아이티 정부와 국제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통해 아이티의 아동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백만 명 이상의 난민들에 대한 보호, 치료활동과 신속한 재배치는 유엔의 지도방침을 따른다.
- '아동친화적 재난위험경감'을 우선순위에 둔다.
- 직접적인 지진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으로 구호 및 재건 사업을 확대한다.

아이티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콜레라는 보건서비스, 수도 및 위생시설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원조국은 콜레라의 확산을 막고 콜레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요청한 1억 7,400만 달러(약 1천 960억 원)의 긴급구호기금의 출자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2010년 12월 중순까지 목표금액의 20퍼센트만이 이행된 상태입니다. 아이티 정부의 '재건과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에서 예상하는 재해손실을 막고 콜레라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구호품, 제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 3) 아동관련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

• **아동보호:**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을 되찾아주며, 아동보호기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아동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들이 즉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재건과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은 사회적 보호체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10만 명 이상의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가 시급합니다. 장기적으로 아이티 정부와 개발파트너들은 재정 및 기술자원을 국가시스템 구축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아동을 노동착취와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동보건 및 영양 향상:** 아이티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콜레라의 창궐을 통해 확인하였듯,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기초 보건서비스를 스스로의 힘으로 제공케 하는 것은 아이티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는 특히 모자보건 및 영양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위생수준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구호활동은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여성과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확보하고 확대시킬 수 있도록 아이티 보건부와 현지파트너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아이티에서 콜레라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병원과 보건시설에 의료장비를 보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검증된 치료방법과 의료서비스를 도시주변지역과 외곽지역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육의 이행:** 기초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확대하는 것은 아이티 정부와 개발파트너들이 즉각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특히, 개학 시기임에도 여전히 학교에 등록하지 못한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이 사안은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아이티의 교육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이티 교육부가 필요한 지도력을 확보하고 관리능력을 강화하도록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체계의 개혁을 위한 예산조성은 초등교육과 영유아발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수준에서 합법적으로 규정된 보편적인 교육보장수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 교육제공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더 나은 학습효과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